

##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경영합리화 도모

◇ 취재 / 김용화부장



△시찰단이 방문할 때 근처 초등학교 고적대가 나와 환영 팽파르까지...

국내 케이지 시장에서 직립식 케이지 국산화에 성공하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보일공업(주)(대표 김현석)은 세계화 시대에 경영합

리화 차원에서 국내 축산업계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한창 시설 투자에 매진하고 있을 때인 1996년 새로운 시장개척과 축산기자재의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국에 진출하여 IMF의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낸 중견 기업이다.

우유 냉각기의 국산화 당시 시장 규모나 기술력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주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노력 끝에 현재는 선진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은 보일공업(주)의 설립자인 故 김춘식씨의 장인정신과 남다른 개척정신이 이루어 낸 산물로 높



△전통적으로 판넬위주 전시회가 주류를 이루는 중국에서 실물전시를 하여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이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도부터 불기 시작한 채란업계의 직립식 무창계사 보급은 보일공업에 또 다른 고민과 도전이라는 숙제를 남겼는데, 당시 독일의 스펙츠 케이지를 수입하여 공급하다가 독자적으로 국산 모델을 개발한 억척스러운 축산 시설 업체이다.

중국에 진출한 천진보일은 지난 5년간 우유



△김정호(보일공업 대표)는 이번 중국산의 기업홍보를 제일 중시하고 있다.

냉각기 제작에 큰 비중을 두어 나름대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으며, 케이지는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일 30만수분 제작수준을 갖추고 있다. 종업원 80여명이 흠어져 일하는 공장 내부는 다소 넓다는 생각이 들지만 선반에서 쇠가 다듬어 지는 소리를 들으면 미래가 밝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된다. 중국 농업부는 천진보일의 제품이

유일하게 중국산 직립식 케이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덩까



△근로자들의 점심 도시락을 데워주는 보일러 시설

지 받아 중국내 시장 여건만 갖추어 진다면 전망은 무한한 듯 싶었다.

전 세계가 1999년에 생산한 축산물은 총 22,539만 톤인데, 그 중 중국은 5,935만 톤을 생산하여 26%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물 생산 중심국가라는 표현이 될 정도이다. 아직 채란업은 2천수에서 7천수 정도가 개인농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설자동화 요구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동기만 부여된다면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난 4월의 천진 육류가격은 소고기가 500g에 인민폐 5원 정도, 돼지고기 500g에 3~5원, 닭고기 500g에 4원, 계란 500g에 1.8~2.4원이었다. 소비와 생산량에 따라 가격 변화는 있지만 육류의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에 거래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은 싼 임금과 축산업의 잠재력이 높아 서두르지 않는다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각 성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산업을 장려하고 있어 개인 단위의 농장 투자는 진척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 A형 케이지의 경우 수당 시설비가 인민폐 10원에서 30원까지이며 계란의 생산비도 합작 대형 농장이 1.8~2.3원, 개인농장이 1.0~1.5원에 접근하여 차이가 많아 대형 합작농장보다는 개인농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같은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성마다 또는 도시마다 체질을 달리하고 있지만 중국인 특유의 중화사상(中華思想), 그리고 검소함이 생활화된 중국인과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어우러지도록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한국 기업이 중국 속에서 초 세계기업이 될 승산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보일 공업(주)의 중국진출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번 중국 취재를 마쳤다. **양계**



장 <천진보안>의 산업을 도입하고 있는 최희복 부